

Exploring the Multicultural Trends of Korean Proverbs

Eunhie Cha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ontent of Korean proverbs that contains multiculturalism. To do this, we first selected three Korean proverbs and searched proverbs based on the defined multicultural character. A total of 29 proverbs were found in the proverb dictionary, and 18 proverbs were finally found when using the peer examination method. In the survey using the peer examination method, the proverb that got the most votes is 'Water looks the same but looks different.' This corresponds to 9.2% of the total.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Korean proverbs, multiculturalism was very limited. Second, diversity was found in interpreting proverbs. However, in this study, we hope to use 18 Korean proverbs as a tool for Korean and cultural education for foreigners, and to use them as a priori materials for dealing with the Intercultural Sensitivity of Koreans.

Key Words: Multicultural, Multicultural Education, Intercultural Sensitivity, Korean Proverb, Characteristics of the Proverb

한국 속담의 다문화성 양상 탐색

채 은 희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속담 중 '다문화성'을 내포한 속담을 탐색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한국 속담 사전 3권을 선별하고 이론적 논의를 통해 도출된 다문화성의 정의를 바탕으로 속담을 탐색하였다. 속담 사전 3권에서 연구자가 탐색한 속담 내용은 총 29건이 발견되어 나타났으며, 타당성 확보를 위한 동료 검증법(peer examination)을 활용해 최종적으로 18건의 속담이 다문화성을 품은 한국 속담으로 도출되어 나타났다. 동료 검증법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속담은 '물 퍼런 것도 잘 보면 여러 가지다./푸른 풀도 자세히 보면 다르다.'이다. 이는 전체 득표수 중 9.2%에 해당된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속담 안에는 '다문화성'이 매우 제한적임이 확인되었다. 둘째, 속담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의 다양성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속담 18건은 주후 이주자에게는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교육을, 정주자에게는 우리 속담 안에 담긴 조상들의 다문화감수성에 대한 선행적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핵심어: 다문화성, 다문화 교육, 다문화 감수성, 한국 속담, 한국 속담의 특성

□ 접수일: 2020년 3월 5일, 수정일: 2020년 4월 9일, 게재확정일: 2020년 4월 20일

*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다문화교육과 박사과정수료

(Completion of Doctoral Course, Inha Univ., Email: shshmam@naver.com)

www.kci.go.kr

I. 서론

많은 연구에서는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물질·지적·예술적·문화적 자원들 속에 내포되어 있는 다문화성을 탐색하여 이를 교육적 자료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 예로, 우리의 판소리에 나타난 다문화성의 표현방식을 통해 매체형식으로서의 은유적, 환유적 조합에 대해 설명하는가 하면(김현주, 2008), 소설분야에서는 김만중의 소설 『구운몽』에 나타난 다문화성 탐색을 통해 다문화 사회에 대한 선구적 관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양민정, 2016). 또한 김려령의 소설 ‘완득이’에서 나타난 다문화성을 토대로, 독서교육으로서의 다문화교육 실천 방안이 모색되기도 하고(김혜영, 2010), 해금 창작곡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에서의 다문화성 탐색을 통해 독자들에게 다문화에 대한 민감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김정희, 1996). 그리고 종영된 TV 방송프로그램 중 「미녀들의 수다」에 내재된 다문화성과 섹슈얼리티의 혼재성을 통해 그 이면의 표층구조와 심층구조를 발견하고 프로그램이 지니고 있는 다문화적 의미구조에 대해 논의하기도 하였다(백선기·황우섭, 2009).

이 밖에도 한국 내 박물관에 전시된 타문화 전시현황을 통해 문화 다양성의 불균형을 지적하는가 하면(김태연·박옥미, 2010),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다문화성 탐색을 통해 이를 다문화교육과 연결하거나 국어 교과서에 등장한 다문화성에 대한 제한 및 문제점 등을 지적한 내용도 있었다(김연권·노재윤, 2010; 장민정, 2016). 언어교육이야말로 소통의 교과인 동시에 사고(思考)의 교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보았을 때, 국어교육이야말로 언어가 표현하는 문화적, 윤리적, 심리적, 사회적, 정치적 가치를 다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교육적 도구가 될 수 있다(김연권·노재윤, 2010). 이 중 특히 한국 속담은 간결한 형식 속에 은유적으로 표현되며 민중의 생활철학을 담은 사회적 소산으로서의 기능과(김용덕, 2004), 민중이 만들어낸 민중의 철학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정신적 유산’으로써 언어문화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손영화, 2017).

속담의 사전적 의미는 ‘예로부터 민간에 전하여 오는 쉬운 격언이나 잠언’으로(국립국어원, 2008) 그 안에는 시대성, 사회성, 문화성, 간결성, 풍자성, 비유성, 민족성, 비속성, 운율성, 변화성 등 많은 특성을 지닌다(한희정, 2018).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문화에 관심이 많은 여러 연구자들은 고전음악, 현대음악, 고전소설, 현대소설, 박물관, 그리고 TV방송프로그램에서 국어 교과서에까지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 안에서 다문화성(多文化性)을 찾고자 노력한 흔적들이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이에 본 연구자 역시 예로부터 구전(口傳)을 통해 전해 내려오며 우리 민족의 민족성을 반영하고 교훈적이며 풍자적으로 시대를

반영하여 비유적으로 표현된 한국 속담(한희정, 2018) 안에서 다문화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한국 속담에서 다문화성이 내포된 속담 내용을 탐색하여 제시하고 이를 다문화 교육에서 다문화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후속연구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첫째, 다문화성을 정의하기 위한 자료로써 다문화와 다문화주의, 그리고 다문화감수성과 다문화교육에 대해 알아보고 이들 자료에서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문화성’을 정의해 본다. 둘째, 한국 속담의 특성을 파악해 보고 한국 속담 사전 3권을 선별하여 다문화성이 내포된 한국 속담 내용을 탐색한다. 셋째, 탐색된 내용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동료 검증법(peer examination)을 활용하여 최종 결과를 도출시킨다.

II. 다문화교육의 배경과 한국 속담의 특징

1. 다문화성과 다문화교육

다문화성에 대해 정의하기 전에 우선 다문화주의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다문화주의가 본격화 된 것은 1970년대로 1960년대 폭발된 미국 ‘시민권 운동(Civil Right Movement)’을 통해 시작되었다. 1964년 미국의 마틴 루터 킹을 필두로 한 흑인과 백인의 시민운동은 흑인차별의 저항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미국에 속한 다양한 민족 집단에 대한 권리운동으로 확장되었다. 또한 1980년대에서 1990년대 다인종 국가(호주, 캐나다, 스웨덴 등)들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며 다문화주의는 정치철학의 차원에서 논의되기도 하였다(이상길·안지현, 2007). 다문화주의는 크게 자유주의적 동화주의, 자유 방임주의적 다문화주의, 급진적 다문화주의로 세분화하고 있지만 이에 덧붙여 박동열(2012)은 상호문화주의를 추가하였다. 그에 따르면 인적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민족관념이 강한 우리나라와 같은 유형은 미국과 달리 자신의 국가가 이민국가가 아니라는 신념을 강하게 갖으며, 이민자와 그의 자녀들을 자국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현상이 나타남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이주민들을 ‘다문화’라는 하나의 종(種)으로 인식하여 차별하거나 배제하는 모순과 연결되기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문화주의는 특정 소수집단을 범주화하고 그 구성원들은 모두 동일시해버리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보았다(장한업, 2009). 그러나 김영순 외(2017)는

다문화주의나 상호문화주의라는 이념을 넘어 다문화교육을 세계시민성교육으로 확장해 나아가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다문화교육에서 세계시민성교육으로의 확장은 바로 민주시민교육과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또한, 다문화시민성을 키우기 위한 기본 자질로써 다문화감수성을 제시하고 있다.

Banks(2014)가 제시한 다문화교육의 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이 다른 문화의 관점을 통해 자신의 문화를 보게 함으로써 자기이해를 증진시키며, 둘째, 학생들에게 민족적·문화적·언어적 대안을 가르치고, 셋째, 모든 공존 문화가 존재하는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 태도, 기능을 육성하며, 넷째, 소수집단이 그들의 신체적·인종적·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겪게 될 고통과 차별을 최대한 감소시키고, 다섯째, 전 지구적 세계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쓰기, 읽기, 수리적 능력 등을 습득하도록 돕고, 여섯째, 다양한 인종, 언어, 문화, 종교를 가진 학생들이 자신이 속한 문화, 시민, 지역, 전 지구적 공동체 안에서 제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 태도, 기능 등을 습득하도록 돕는데 있다. 다문화교육은 한 국가 문화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집단을 위한 교육기회의 평등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고른 적용과 확대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

다문화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다문화감수성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Bhawuk & Brislin(1992)은 다문화감수성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타문화를 대할 때 갖는 열린 마음, 타문화 맥락 안에서 자신의 행동을 적절히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Chen & Starosta(1996)도 다문화감수성이 타문화 집단과의 성공적 의사소통을 위해 개인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다양한 환경에서 적절한 개인행동이 다루어진 민감성은 개인과 사회의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는 정서 상태를 통해 '감정과 태도를 기본으로 한 타자지향성을 발현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김정덕·모경환(2011)은 다문화감수성을 '다른 문화 사람들을 존중하고 수용하려는 태도, 신념, 행동'으로 정의하고 사고방식이나 동기적 성향으로서의 감수성이 높은 자는 복잡한 상호작용 상황에서도 더 잘 대응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다문화감수성은 다문화교육과 관련하여 다문화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이세나·강순미, 2013). 그러므로 다문화교육에 있어서 다문화감수성은 교육현장에서 매우 유용하고 필수적인 교육적 도구가 되고 있다.

위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한 '다문화성(多文化性)'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문화주의가 다양성에 대한 규범으로써 명문화하여 합의한 사회적 합의이고, 다문화감수성은 다문화교육에 있어 교육을 진행하는 교사가 지녀야 할 타자지향성을 강구하게 하는 역량이며, 다

문화교육이 자문화는 물론, 타문화에 대한 이해증진과 그 능력의 함양에 있다고 하였을 때, 다문화성은 어떤 관념이나 이념, 주의, 그리고 그에 대한 적용을 위한 의도적 개입이 아닌 사회 안에 다양하게 존재하고 집단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사회학적 사실’로 정의할 수 있다. 이에 정기섭(2011)도 다문화성은 사회 내에서 공존하는 다양한 문화들이 사회적 구조를 서술하는데 필요한 기초적 요소라고 정의한 바 있다. 또한 Johnson & Johnson (2002)이 ‘문화(cultural)’가 사회화 과정을 통해 세대에 전승되고 구성원들의 지속적 사용을 허용하는 만큼 이제 우리 사회에서 접두사 ‘다(multi-)’를 포함하지 않은 ‘문화’의 용어를 사용하기 어렵게 됨을 설명한 것처럼, 본 연구자는 이렇게 정의된 다문화성을 바탕으로 한국 속담 안에서 표현된 다양성의 내용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2. 속담의 특성과 한국 속담

속담이란, ‘예로부터 민간에 전하여 오는 쉬운 격언이나 잠언’으로(국립국어원, 2008) ‘간결한 형식 속에 은유로써 민중의 생활철학을 담은 사회적 소산’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용덕, 2004). 속담은 언어로 구전되어 오며 언어를 통한 은유적 표현은 한국인의 삶, 관념, 정서,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또한 속담은 물리적 세계를 사회·문화적 세계로 재구성시키는 역사적·문화적 산물로(최상진, 1997) 민중이 만들어낸 민중의 철학이며, 문화·역사가 되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정신적 유산’인 셈이다(손영화, 2017). 이에 손영화(2017)는 속담이 ‘한 민족의 정신세계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설명하며, 인지언어학 측면에서도 속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인지언어학’이란, 인지과학의 하나로 인지적 관점에 바탕을 둔 언어학이다. 말 그대로 인간이 외부세계를 지각함에 있어 경험되는 내용의 조직과 의사소통이나 문화를 가꾸는데 필요한 모든 인지 과정에서 ‘언어’가 활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언어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의미를 만들어 내며, 어떻게 문화와 사회 안에서 유지·형성 되어 가는가를 연구하는 학문 중 하나가 바로 인지언어학인 것이다(임지룡, 2008).

속담 안에는 많은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통속성, 향토성, 사회성, 시대성, 간결성, 교훈성, 풍자성, 비유성, 과장성, 문화성, 비속성, 운율성, 변화성, 민속성 등 많은 특성이 내포되어 있다(김영자, 2011; 한희정, 2018). 이에 속담의 특성에 대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정리한 한희정(2018)의 한국 속담 특성 내용을 참고하여 다음 <표 1>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표 1〉 속담의 특성

구분	특성 내용	특성 개념
1	속담은 사회적 소산물로서 민중이 공감을 얻어 전승된 것이다.	시대성 민족성
2	속담은 봉건사회, 농경사회, 유교사상, 남존여비사상 등과 같이 생성된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한다.	시대성 문화성
3	속담은 인간의 삶에서 필요한 미덕이나 처세, 지침과 같은 교훈을 전하거나 사회, 사람, 사회 현상 등을 풍자한다.	교훈성 풍자성
4	속담은 전통시가의 기본 율격인 2음보 및 4음보의 구성, 대구법의 사용 등 형식이 간결하고 외형 구조상 조화가 있기 때문에 민중들이 쉽게 사용하고 기억할 수 있다.	간결성 운율성
5	속담은 기본의미는 같으나 시대와 지역에 따라 비유적 표현이나 통사구조가 변화되어 왔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바꾸어 사용할 수 있는 유의관계에 있는 속담이 많다.	시대성 문화성 변화성 유의성
6	속담은 민족의 고유한 정서와 심리, 가치관, 문화 등의 민족성을 반영한다.	민족성
7	속담은 민중이 쉽게 공감하는 정서나 생활경험에 따른 비유표현으로 직유법, 은유법, 풍유법, 활유법, 대유법 등과 같은 비유법이 사용된다.	비유성
8	두 가지 이상의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중의적인 속담이 많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인용해야 한다.	비유성
9	속담은 민중들의 구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으로, 관련된 당사자를 비판하는 경우 비속어가 선택되기 쉽다.	비속성

※ 참고 및 인용: 한희정(2018).

이러한 많은 속담의 특성으로 인해 심형진(2013)은 현대의 가치관 상실과 위기, 인간성 상실이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속담’이 건강한 교육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교육 자료로서의 효용성에 대해 언급하고 속담의 가치 활용을 통해 교육의 본질 회복을 강조하였다. 또한 속담은 민중의 가치관, 삶의 지혜, 사고방식 등 많은 것을 반영하지만, 각각의 속담을 만들어 내는 사람 또한 개인이며, 자연스럽게 구전되고 전해지는 특성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에게 쉽게 수용·적용되며(김종수, 2002), 현재에 이르러 또 하나의 지식체제로 형성되고 있다. 이에 손영화(2017)도 속담을 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 다루며, 오늘날의 현대 사회는 사회심리학을 통해 개인이 타인지각 관점에서 타인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론화하여 정립해 나갔다면, 과거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많은 일들을 ‘속담’을 통해 정립해 왔음을 설명하고 있다.

Ⅲ. 한국 속담의 다문화성 양상

한국 속담 안에 숨어 있는 내용 중 다문화성을 품은 속담 내용 탐색을 위해 총 3권의 속담 사전을 탐색 자료로 삼았다. 먼저 김도환(2009)의 『한국속담활용사전』은 인생의 공리에서 자연현상까지 총 48건의 내용강목을 통해 속담을 범주화하고 범주화에 맞는 속담내용을 분류하여 그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48건의 범주화 내용 중, 38번 ‘상동·상이’, 42번 ‘사상의 야기·변화·감소’ 범주에서 다문화성을 품은 속담 13건이 발견되어 나타났다. 두 번째로 엄병섭 외(1996)의 『조선속담집』 역시 ‘강인성·인내성·참을성’을 시작으로 ‘시간·때’ 등 총 100가지의 범주화를 통해 속담을 분류하고 이를 해석하는 방식을 따랐다. 이 중, 72번 ‘불변성·변화·흔적·정조’ 범주와 80번 ‘결과 속·내용과 형식’에서 총 10건의 다문화성을 품은 속담이 발견되어 나타났다. 세 번째 사전은 이은숙(2006)의 『뎡기 끝에 진주 같은 우리말 속담』 사전이다. 이 사전은 총 1,231건의 속담 내용을 가나다순으로 배열하고 내용 밑에는 간략한 해석을 제공함이 특징적이다. 앞의 두 사전이 범주화된 속담사전으로, 해당 범주만을 찾아 분석할 수 있는 편리성이 존재했다면, 이은숙(2006)의 속담사전은 범주화되지 않은 사전으로, 총 1,231건의 속담 내용을 일일이 탐색하여 다문화성이 내포된 속담을 찾아내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역시 필요할 것으로 여기고 이를 분석 자료로 삼았다. 이은숙(2006)의 속담사전은 1번째 ‘가게 기둥에 입춘’을 시작으로 1,231번째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씨다.’를 끝으로 구성된 속담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탐색된 속담 내용은 다양성이나 다문화성을 내포하고 있는지 타당성 확인을 위한 검증방법으로써 ‘삼각 검증법(triangulation)’을 사용하였다. 삼각 검증법은 질적 연구 상황에서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전략 중 하나로, 다수의 자료, 방법, 다수의 조사자나 이론 등을 동원하여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로 사용된다(Denzin, 1970). 이에 정선정(2014)은 다문화교육의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연구방법 중 하나로 삼각 검증법을 활용하였고, 신혜경(2013)은 동향분석 연구에서 삼각 검증법을 활용하였다. 이처럼, 삼각 검증법은 질적연구에서 타당성 검증을 위해 주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복수의 연구자들의 의견과 관점을 토대로 보다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고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간다는 점에서 삼각 검증법이 본 연구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유효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검증과정에서 본 연구의 보다 높은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국어교육과 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동료 검증법(peer examination)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피드백을 통해, 2018년 11월 28일부터 12월 14일까지 총 7명의 국어교육과 원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표집에 있어서 국어교육과 원생 중 특히 박사과정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는 1명의 국어교육과 원생의 도움을 통해 ‘눈덩이 표집선정 (snowballing sampling)’을 따랐다(유기웅 외, 2015). 설문은 익명으로 진행되었으며, 설문 내용은 우선,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본 연구에서 정의된 ‘다문화성’에 관한 설명을 통해 연구자가 제시한 총 29건의 속담 내용 중 다문화성이 내포된 속담내용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모두 표시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국어교육과 원생을 대상으로 함은 현재 이들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진행 중인 자들이거나, 앞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관심이 많고 그와 관련된 교육을 희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삼각 검증법(동료 검증법)의 활용은 연구 결과의 타당성과도 관련이 있다.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속담내용부터 득표가 가장 적은 속담내용순서로 정리하고 그 중 득표를 전혀 받지 못한 속담과 득표수가 하나인 속담 내용은 결과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해 발견된 29건의 속담 내용 중, 2표 이상 득표한 속담은 최종적으로 18건이 되었다. 18건의 결과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한국 속담의 다문화성 양상 탐색 내용

사전 구분 (저자명)	내용(풀이)	득표수
김도환 ¹⁾	1 물 떠런 것도 잘 보면 여러 가지다. / 푸른 풀도 자세히 보면 다르다. 전체적으로 공통성이 있는 것일지라도 개별적으로 자세히 보면 서로 다르다.	6
김도환	2 눈 먹던 토끼, 얼음 먹던 토끼는 다 각각 사람은 자기가 겪어온 환경이나 생활양식에 따라 그 특성이나 생각을 서로 달리한다.	5
김도환	3 한날 한시에 난 손가락도 길고 짧다 / 한 배 새끼도 흰둥이와 검둥이가 있다. 이 세상에는 성격이나 능력이나 특성에 있어서 서로 같은 사람은 없다.	5
김도환	4 잠자리는 같은데 꿈은 다르다. 한 곳에 살면서도 뜻은 서로 다르다.	4
김도환	5 오목장이 아무리 분주해도 제 불장만 본다. 사람이 많이 모여 들끓는 데서도 저마다 생각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다.	4
엄병섭 외 ²⁾	6 검은 고기 맛이 있다. 검은 고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맛있어 보이지 않으나 실지는 맛이 좋다는 뜻으로 겉모양만 가지고 내용을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르는 말.	4
엄병섭 외	7 까마귀가 검기로 살도 검을까 겉만 보고 속까지 경솔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뜻으로 형식만보고 내용을 규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계하여 이르는 말.	4
김도환	8 눈이면 다 제석 눈인가 눈이 온다고 다 선달 그믐날 밤에 오는 눈이 아니듯이, 겉모양이 같다고 질아 다 같을 수는 없다.	3

김도환	9	산중(山中) 늪은 도끼질, 야지(野地) 늪은 팽이질 사람은 각각 환경에 따라 하는 일이 서로 다르다.	3
엄병섭 외	10	겉이 검기로 속도 검을까 겉을 보고 속까지 평가하여서는 안 되다는 것을 교훈적으로 이르는 말.	3
이은숙 ³⁾	11	자기 배부르면 남의 배고픈 줄 모른다. 환경과 조건이 틀리면 남의 사정을 이해하기 어렵다.	3
김도환	12	소 힘은 소 힘이고, 새 힘은 새 힘이다. 능력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	2
김도환	13	목수는 쇠를 깎지 못한다. 사람 맡은 일은 서로 다르다.	2
엄병섭 외	14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세월이 흐르면 비교적 변하지 않는 강산이라도 변하게 된다. 모든 사물현상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을 이르는 말.	2
엄병섭 외	15	한 달이 크면 한 달이 작다. 세상에 고정불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	2
엄병섭 외	16	속 각각 말 각각 하는 말과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말.	2
이은숙	17	염주도 뭇뭇이요 쇠뿔도 각각이다. 무엇이나 각각 자기가 맡은 영역이 따로 있다는 말.	2
이은숙	18	합덕 방죽에 줄남생이 늘어났듯 여러 물건이 줄지어 늘어났은 모양.	2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속담은 ‘물퍼런 것도 잘 보면 여러 가지다(푸른 풀도 자세히 보면 다르다).’로 6표를 얻었다. 이는 설문에 답한 대상자 7명 중 6명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눈 먹던 토끼, 얼음 먹던 토끼는 다 각각’, ‘한날 한시에 난 손가락도 길고 짧다(한 배 새끼도 흰둥이와 검둥이가 있다).’가 각각 5표를 얻었으며, ‘잠자리는 같은데 꿈은 다르다.’, ‘오목장이 아무리 분주해도 제 불장만 본다.’, ‘검은 고기 맛이 있다.’, ‘까마귀가 검기로 살도 검을까’는 각각 4표를 얻었다. 다음으로 3표를 얻은 속담은 ‘눈이면 다 제석 눈인가.’, ‘산중(山中) 늪은 도끼질, 야지(野地) 늪은 팽이질.’, ‘겉이 검기로 속도 검을까.’, ‘자기 배부르면 남의 배고픈 줄 모른다.’이며, 2표를 얻은 속담은 ‘소 힘은 소 힘이고, 새 힘은 새 힘이다.’, ‘목수는 쇠를 깎지 못한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한 달이 크면 한 달이 작다.’, ‘속 각각 말 각각.’, ‘염주도 뭇뭇이요 쇠뿔도 각각이다.’, ‘합덕 방죽에 줄남생이 늘어났듯.’이다.

- 1) 김도환(2009), 한국속담활용사전: 발견된 속담 9건.
- 2) 엄병섭·김종선·박용순·류영걸(1996), 조선속담집: 발견된 속담 6건.
- 3) 이은숙(2006), 뎡기 끝에 진주 같은 우리말 속담: 발견된 속담 3건.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3권의 한국 속담 사전을 선별하여, 그 안에서 다문화성이 내포된 속담 내용 29건을 탐색하고 설문지를 통해 동료 검증법을 활용하였을 때, 최종적으로 18건의 속담 내용이 도출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한국의 속담 안에는 ‘다문화성’이 매우 제한적임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자가 속담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속담은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비유성이나, 세상의 부조리를 꼬집는 풍자성, 인간 삶에 도움이 되는 처세나 교훈을 전하는 교훈성, 민족 고유의 정서와 한(限), 가치관 등을 표현한 민족성 등이 주로 반영됨이 발견되었다. 이는 속담의 특성 중 시대성, 사회성, 문화성, 풍자성, 비유성, 민족성(김영자, 2011; 한희정, 2018) 등과 함께 한국의 집단주의 및 단일민족주의의 영향이 속담 안에 내포되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이처럼 속담이 대중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시간과 공간적으로 전파·전승되어야 비로소 그 생명력을 얻는다고 가정하였을 때(손영화, 2017), 과거 한국 문화의 특성은 다양성을 받아드려 속담에 반영하기엔 매우 제한적일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에 최상진(1997)도 속담이 인간의 역사와 문화 안에서 살아왔으며, 또한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들의 공유된 세계관과 인간 삶의 함축적 비유를 통해 세속의 언어로 간명하게 응축시킨 생각과 언어, 행동과 관심을 지칭한다고 하였을 때, 속담은 오랜 시간에 걸쳐 역사·문화적으로 종축되고 현대 사회 안에서 횡축된 경험으로 살아남은 일반인의 진리임을 강조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앞으로 머지않은 미래에는 다문화성을 내포한 속담 표현들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속담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의 다양성이다. 3권의 속담 사전 안에서 연구자가 탐색해 낸 29건의 속담 내용 중, 보다 명료화된 자료 탐색을 위해 동료 검증법을 활용하였을 때, 국어교육과 대학원생들의 다문화성을 내포한 속담 내용의 탐색은 기대만큼 명료화되지 못했다. 예를 들면, 이것과 저것이 다른 상대적 다름이나 하나를 가지고도 겉과 속의 다름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이는 속담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각 개인의 경험과 이해의 내용이 다른 결과로 예측된다. 이에 박갑수(2015)는 속담이 민속 문학에 속하는 담화의 일종으로 일반 언종의 친숙함과 달리, 그 속성이 모호하여 정의를 내리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밝힌 바와 같다. 특히 속담은 개인적이고 특수한 것을 구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특정 언어사회를 반영하며 정착된 것으로, 심한 경우 이를 해석하는데 있어 의미상 상반된 경향까지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과 같이, 속담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있어 개인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이는 다문화성이 사회에서 다양하게 존재하는 집단들의 '사회학적 사실'이라고 하였을 때(김비환, 2007), 변화성은 다문화교육에 있어서 다양성이 날로 증가하는 사회변화현상에 관한 담론으로 연결하여 다문화교육 현장에서의 학습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정기섭(2011)도 다문화성은 사회 내에서 공존하는 다양한 문화(다름)들이 사회적 구조(변화)를 서술하는데 필요한 기초적 요소라고 정의한 바와 같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속담 자료를 바탕으로 이주자에게는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교육을, 정주자에게는 우리 속담 안에 담긴 과거 조상들의 다문화감수성에 대한 선형적 자료를 확인하며 다문화 사회, 글로벌 사회에서 필수요소로서의 다문화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귀한 교육적 자료로 활용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 조상들의 삶과 지혜가 담긴 속담을 활용해 교육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할 것이다. 본 연구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한국의 속담 안에 존재하는 '다문화성'을 찾는데 의의를 두었으며, 이렇게 탐색된 결과 내용은 교육적 자료로 개발하여 프로그램화하고 이를 다문화 교육 현장에서 실제 적용해야하는 과제로 남게 되었다.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2008), 『표준국어대사전』.
- 김도환(2009), 『한국속담활용사전』, 파주: 한울.
- 김비환(2007), “한국사회의 문화적 다양화와 사회 통합: 다문화주의의 한국적 변용과 시민권 문제”, 『법철학연구』, 10(2): 317-348.
- 김연권·노재윤(2010), “국어교과에서의 다문화교육: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다문화교육』, 1(3): 1-30.
- 김영순·오영훈·정지현·김청아·최영은·정소민·최승은·조영철(2017), 『처음 만나는 다문화교육』, 성남: 북코리아.
- 김영자(2002),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속담 교육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덕(2004), “한국민속문화대사전(상)”, 도서출판 창솔.
- 김정덕·모경환(2011), “문화성향과 다문화감수성 관계 연구”, 『교육문화연구』, 17(3): 183-226.
- 김정희(1996), “해금창작곡을 중심으로 본 한국음악의 다문화성”, 『낭만음악』, 33: 199-220.
- 김태연·박옥미(2010), “한국박물관에서의 타문화 전시 현황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6(3): 108-119.
- 김현주(2008), “판소리의 다문화적 성격과 문화연변”, 『한국구비문학회』, 26: 101-129.
- 김혜영(2010), “다문화 시대의 독서교육: 김려령의 소설 ‘완득이’를 중심으로”, 『한국사고와 표현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1): 19-29.
- 데이비드 존슨과 로거 존슨(Johnson, D. W. & R. T. Johnson) 저(2002), 김영순 역(2010), 『다문화교육과 인간관계(Mult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lations)』, 파주: 교육과학사.
- 박갑수(2015), “한국 속담의 일반성과 특수성 비교를 통한 한국 속담의 특성”,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42: 5-42.
- 박동열(2012), “다문화주의와 그 쟁점들”, 『다문화교육 연구와 실천』, 4: 21-53.
- 백선기·황우섭(2009), “다문화성 TV방송 프로그램의 패러독스: KBS-TV의 <미녀들의 수다>에 내재된 ‘다문화성’과 ‘섹슈얼리티’의 혼재성”, 『한국언론정보학보』, 45: 255-295.

- 손영화(2017), “전통 속담을 통해 본 한국인의 사회심리”, 『한국학논집』, 67: 417-452.
- 신혜경(2013), “미국 음악교육에서 질적 연구의 동향 분석”, 『음악교육연구』, 42(2): 91-117.
- 심형진(2013), “한국사상 철학: 속담을 통해서 본 교육관 분석과 그 활용 방안”, 『한국사상과 문화』, 66: 185-205.
- 양민정(2016), “다문화적 관점에서 <구운몽>을 통해 본 소통과 화합 방식”, 『외국문학연구』, 16: 207-236.
- 엄병섭·김종선·박용순·류영결(1996), 『조선속담집』. 서울: 한국문화사.
- 유기웅·정종원·김영석·김한별(2015),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주)박영사.
- 이상길·안지현(2007), “다문화주의와 미디어/문화연구: 국내 연구동향의 검토와 새로운 전망의 모색”, 『한국언론학보』, 51(5): 58-83.
- 이세나·강순미(2013), “다문화경험에 따른 예비유아교사의 다문화감수성, 다문화교육태도, 다문화교수효능감에 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0(4): 95-124.
- 이은숙(2006), 『대기 끝에 진주 같은 우리말 속담』, 서울: 황금두뇌.
- 임지룡(2008), 『의미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서울: 한국문화사.
- 장한업(2009), “프랑스의 상호문화교육과 미국의 다문화교육의 비교연구”, 『프랑스어문교육』, 32: 105-121.
- 정기섭(2011),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관점에서 본 상호문화역량”, 『교육의 이론과 실천』, 16(3): 133-149.
- 정선정(2014), “도덕이야기 수업을 적용한 다문화교육의 효과에 관한 연구: 편견과 타인 배려를 중심으로”, 『인구교육』, 7: 55-79.
- 제임스 बैं크스(Banks. J. A.) 저(2014), 모경환·최충욱·김명정·임정수 역(2016), 『다문화 교육 입문(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5판)』,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 최상진(1997), “속담을 통해 본 한국인의 사회표상”, 『한국민속문화연구총서』, 4: 157-180.
- 한희정(2018), “한국의 공경의식에 대한 속담의 문화 교육적 의의”,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춘계 공동학술대회 학술지』.
- Bhawuk, D. P. S. & R. Brislin(1992), “The measurement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using the concept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6(4): 413-436.
- Chen, G. M. & W. J. Starosta(1996),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mpetence: A synthesis”, 『Communication Yearbook』, 19: 353-383.

Denzin, N. K.(1970), 『The research act: A theoretical introduction to sociological methods』, New York: McGraw-Hill.